

가족정책의 성과공유를 위한 OECD Family Database의 구축과 과제

Establishing OECD Family Database and Tasks ahead for Equal Sharing of Family Policy Outcomes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감

선진 국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경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함께 가족부문에 대한 정부재정지출의 확충 등의 변화에 관심을 두었다. 이들 국가는 출산력을 증가시키고 향후 예상되는 노동공급의 부족을 완화하며 새로운 위협에 처한 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국가의 주요한 아젠다로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가족과 아동에 대한 국가 비교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OECD는 최근 Family Database¹⁾를 개발하여 회원국의 가족정책 성과(outcome)와 가족관련 지표들을 비교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OECD 데이터베이스들²⁾과 유럽연합(EU)의 데이터베이스,

OECD의 개별 프로젝트들³⁾ 등에서 제공되던 정보를 취합하고, 회원국들의 가족·노동·재정·아동정책분야의 지표들로 구축('08년4월)된 것이다. 이와 같이 Family Database는 가족과 아동에 대한 개별 국가의 실태, 정부의 가족부문 지출, 일-가족생활 양립에 대한 현황 등 가족정책의 성과(outcome)를 공유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따라 작성한 Database이다.

최초의 Family Database는 2006년 말에 공개되었으나 대부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료들로 구성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새로운 지표들을 포함하여 23개 지표를 공개하였고, 2009년에는 기존의 자료들을 최신화(up-date)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통계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50여개를 공개하였다. 현재(2009년 3월말) OECD Family Database는 4

개 부문의 5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네 부문은 가족의 구조(9개 통계),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12개 통계),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적 지출(15개 통계), 그리고 아동성과(18개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9월, OECD는 회원국인 우리나라에 2009년부터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의 관련 통계인 통계청 인구 및 주택조사, 유아교육 및 보육 실태조사, 가계조사, 혼인과 출산동향 조사 등 독립적으로 행해지던 가족부문에 대한 통계 자료의 수집과 검토 또는 생산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Family Database의 개요, 분류체계와 개발단계, 54개의 개별통계 중 첫 번째인 '가족규모와 구성(SF1)'을 중심으로 작성 기준의 고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족DB통

계생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Family Database의 체계와 개발단계

OECD Family Database는 대·중·소의 분류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개의 대분류, 14개의 중분류, 54개의 소분류, 그리고 104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2009년 3월말 기준). 이들 구성 체계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개발하고 있어 앞으로 지표체계의 범위는 넓어지고 통계 개수는 증가할 것이나 이 과정에서 영역별 항목의 중복이나 개발통계의 영역에 포함되는 기존의 일부 통계들은 소멸될 것으로

표 1. OECD Family Database의 대·중분류의 체계(2009년 3월말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하위항목
4	14	54	104
1. 가족의 구조 The Structure of families	1) 가족과 아동 Families and Children	3	9
	2) 출산지표 Fertility indicators	4	15
	3) 혼인과 동거 상태 Marital and partnership status	2	7
2.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The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	4) 가족, 아동과 고용상태 Families,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4	5
	5) 성별 연령그룹(5세)별 고용율의 코호트 비교 Cross-cohort comparisons of employment rates by 5-year age groups by gender	2	7
	6) 근로시간과 돌봄노동에 소요하는 시간 Workplace hours and time for caring	6	3

1) 홈페이지는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Benefits and Wages database, OECD Education database 등.

3) OECD Babies and Bosses(2005; 2007), OECD, Starting Strong II(2006), OECD, Taxing Wages 2006-2007(2007) 등.

〈표 1〉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하위항목
3.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적지출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7) 유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조세/급여 지원 General tax/benefit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6	9
	8) 아동관련 휴가 Child-related leave	3	11
	9) 어린 영아에 대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 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3	7
	10) 가족유형과 가구 소득 대비 양육 급여와 순 부모 비용의 유형 Typology of childcare benefits and net parental fees by family type and income level	3	5
4. 아동성과 Child outcomes	11) 아동 건강 Child health	6	7
	12) 아동빈곤 Child poverty	2	8
	13) 교육 및 기초문해 Education/Literacy	5	11
	14) 사회 참여 Societal participation	5	0

자료: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생각된다.

OECD는 Family Database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작성 기준과 통계자료(Data)는 소분류 단계에서 부분적으로만 제시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통계에 대한 작성기준은 약 60%(소분류 54개 중 32개), Data는 50%(소분류 54개 중 27개)만 제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각 100% 수준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성기준의 개발 완료 또는 통계자료(Data)의 최신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Database개발의 진행단계를 네 단계로 구분해 보았다. 단계별 구분의 기준은 작성기준 제시와 통계자료 공개 여부이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100%이면 완속단계, 90%이

상이면 완성단계, 50%이상이면 중간단계, 그리고 40%이하이면 도입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대분류 1인 ‘가족의 구조’(SF, The structure of family)는 완속단계에, 대분류 2인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LMF, The labour market position of families)는 도입단계, 대분류 3인 ‘가족과 자녀에 대한 공공정책’(PF,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은 완성단계에, 그리고 대분류 4인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는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표 2. OECD Family Database의 소분류 체계 및 개발단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작성기준	통계	진행
			제시여부	공개여부	
1. 가족의 구조	가족과 아동	SF1 가족 규모와 구성 Family size and composition	○	○	완속 단계
		SF2 가족 내 아동 Children in families	○	○	
		SF3 아동의 생활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Further information on living arrangements of children	○	○	
	출산통계	SF4 출산율 Fertility rates	○	○	
		SF5 첫 자녀 출산시 어머니의 평균 연령 Mean age of mother at first childbirth	○	○	
		SF6 외도로 인한 자녀 출산율과 십대 출산율 Share of births outside marriage and teenage birth	○	○	
		SF7 무자녀 Childlessness	○	○	
	혼인과 동거상태	SF8 혼인율과 이혼율 Marriage and divorce rate	○	○	
		SF9 동거율과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의 비율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	○	
2.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가족, 아동과 고용상태	LMF1 고용 상태별 가족의 아동 Children in families by employment status	×	×	도입 단계
		LMF2 어머니의 고용 Maternal employment	×	○	
		LMF3 가족상황별 어머니의 고용 Maternal employment by families status	×	×	
		LMF4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 프로파일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	○	
	성별 연령별 고용율의 코호트 비교	LMF5 성별 급여 격차와 교육 수준별 소득 차이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	○	
		LMF6 고용 결과에서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	○	

<표 2>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작성기준 제시여부	통 계 공개여부	진행 단계
2.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근로시간과 돌봄노동에 소요하는 시간	LMF7 남성과 여성의 주당 평상 근로시간 Usual weekly working hours among men and women by broad hours groups	×	○	도입 단계
		LMF8 자녀와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커플 가구와 각 성인의 근로시간의 분배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among couple families and adults in couple families individually, by broad hours groups, presence of children, and age of youngest child	×	×	
		LMF9 자녀 유무와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싱글 가구의 근로 시간 분배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among single persons by broad hours groups, presence of children, and age of youngest child	×	×	
		LMF10 가족 우호적인 근로 환경의 실제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	×	
		LMF11 여가나 근로에서 벗어나 보내는 시간 Time spent traveling to and from work	×	×	
		LMF12 근로와 돌봄, 가사일에 소요되는 시간 Time used for work, care and daily household chores	×	×	
		3.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적지출	유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조세/급여 지원	PF1 가족급여에 대한 공공지출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PF2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			○	
PF3 가족현금급여 Family cash benefits	○			○	
PF4 성중립적인 세금/급여 시스템 Gender-neutrality of tax/benefits systems	○			○	
PF5 아동지원시스템 Child Support (maintenance) Systems	○			○	
PF6 양육지원 Parenting support	×			×	

<표 2>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작성기준 제시여부	통 계 공개여부	진행 단계		
3.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적지출	아동관련 휴가	PF7 부모휴가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징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	○	완성 단계		
		PF8 부모별 휴가 급여 점유율 Use of leave benefits, by mothers and fathers	○	○			
		PF9 맞벌이 부모의 추가적인 휴가 이용 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parents	○	○			
	어린 영아에 대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	PF10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	○			
		PF11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등록율 Enrollment in day-care and pre-school	○	○			
		PF12 보육지원 Childcare support	○	○			
	가족유형과 가구 소득 대비 양육 급여와 순부모비용의 유형	PF13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의 유형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	×			
		PF14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	×			
		PF15 방과후보육 Out-of-school-hour care	○	○			
	4. 아동 성과	아동건강	CO1 영아사망율 Infant mortality	○		×	중간 단계
			CO2a 저체중 출산 Low birth-weight	○		×	
			CO2b 백신율 Vaccination rates	○		×	
			CO3 모유보급율 Breastfeeding rates	×		×	
			CO4 질병 관련 통계: 아동의 당뇨병과 천식 Disease-based indicators: Prevalence of diabetes and asthma among children	×		×	
			CO5 10세 이하 아동의 비만 Obesity among children aged 10(and child height for children aged 10)	×		×	
CO6 15세 이상 아동의 성별 상습 흡연자 Regular smokers among 15 years olds, by gender			×	×			

〈표 2〉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작성기준 제시여부	통 계 공개여부	진행 단계
4. 아동 성과	아동빈곤	C07 가구유형별 소득 지위의 경향 Trends in the income position of different household types	○	×	중간 단계
		C08 아동 빈곤 Child poverty	○	○	
	교육 및 기초문해	C09 성별 교육수준과 정규 교육의 평균기간(년) Educational attainment by gender and average years spent in formal education	○	×	
		C010 학문분야별 대학 졸업자들의 성별 차이 Gender differences in university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	×	
		C011 9세 연령의 기초학력 점수 Literacy scores, age 9	×	×	
		C012 15세 연령의 성별 기초학력 점수 Literacy scores by gender at age 15	○	×	
		C013 교육이나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or employment	○	×	
	사회참여	C014 15~29세 청년의 자원 봉사나 NGO회원 참여 Participation in voluntary work and membership of NGOs for young adults, 15~29	×	×	
		C015 생애 첫 투표 참여율 Participation rates of first-time voters	×	×	
		C016 십대 투옥률 Teenage incarceration rates	×	×	
		C017 청소년의 약물 남용 Substance abuse by young people	×	×	
		C018 십대 자살 Teenage suicides	×	×	

주: ○표는 작성기준 또는 통계자료의 제시를, ×표는 미제시를 의미
자료: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3. Family Database의 작성 기준 고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별통계에 대한 작성 기준과 통계자료는 소분류 단계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소분류에는 2~3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분류의 통계수는 54개이지만, 하위항목 104개에 대한 통계자료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소분류 수준에서 제공되는 작성기준과 통계자료(data)는 각 하위항목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각 통계에 대한 작성기준은 정의와 작성방법(definitions and methodology), 핵심 통계(Key findings), 비교 가능성과 데이터 이슈(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그리고 자료와 추가 자료(sources and further reading)로 구성된다. 이러한 개별통계의 작성기준과 통계자료의 소개는 지면의 분량상 첫 번째 통계(SF1)⁴⁾에 국한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정의와 작성방법 (definitions and methodology)

‘가족 규모와 가구 구성(SF1)’의 ‘정의와 작성방법’으로는 각 통계에 대한 개념 소개와 함께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개별 가구의 구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개별 가구(private household)란 다음 중 하나다. (a) 1인 가구(single-person household),

예로서 독립된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단일 주택에서 분리된 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택 단위에 속해 있는 2명 이상의 사람들과 가구를 형성하지는 않은 사람이다. (b)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multi-person household), 예로서 주거 단위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유하며 생활비 부담을 공유하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가구 구성원의 확인은 일상적인 거주를 기초로 하며, 의료기관, 군대와 같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여기서 가족이란 핵가족으로 제한한다. 핵가족은 배우자인 자녀가 있거나 혹은 없는 커플(기혼 혹은 동거)이거나 한 자녀 이상 있는 한부모이다. 이때 부모는 생물학적인 부와 모 뿐만 아니라 복합가족(step family), 예를 들어 생물학적인 부모의 파트너까지 포함하는 용어이다.

이에 따르면 가구유형은 다음과 같이 하위 범주화된다. (a) 1인가구, (b) 자녀여부에 관계없이 이성인 어른과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커플가구, (c) 한부모가구, (d) 기타, 이 범주에는 그 외 동일한 거주지를 이용하는 2인 이상의 가족들이 동거하는 가족, 3세대 이상의 친인척이 동거하는 가구들(조부모, 부모 그리고 자녀가 있는 “확대 가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SF1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핵가족을 전제로 하며, 1인가구, 커플가구, 한부모가구, 기타가구로 구성된다. 이 때 커플가구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음을 알 수 있다.

4) 이하의 절은 Family database 홈페이지(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2) 핵심 통계(Key findings)

‘가족 규모와 가구 구성(SF1)’은 4개의 핵심 통계, 즉 가구의 규모(그림 SF1.1), 가구 유형(표 SF1.1), 유자녀 가구(표 SF1.2), 그리고 자녀의 수에 따른 가구(표 SF1.3)가 그것이다. 평균 가구원수는 일반 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성인과 아동 포함)와 각 범주별 가구의 수에 대한 비율로 계산되는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의 평균가구원수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의 2.1명에서 멕시코(4.1명)와 터키(4.0명)까지 다양하다. 반면에 자녀가 있는 커플가구는 포르투갈, 체코, 독일 3.7명에서 멕시코(4.8명), 아일랜드

(4.3명)까지 편차가 크지 않다.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의 경우 불가리아(2.3명)에서부터 아일랜드(3.0명), 멕시코(4.0명)까지 다양하다. SF1의 4개 하위항목 중 한국 자료는 가구규모(그림 SF1.1)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자료에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3) 비교가능성과 데이터 이슈 (comparability and data issues)

‘가족 규모와 가구 구성(SF1)’의 데이터는 대부분 각국의 인구주택총조사(Census of population and dwellings)에서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인구센서스는 인구와 가족 구

성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완벽한 자료로 매 5년 혹은 10년마다 조사가 실시되며, 정기적으로 인구의 특징과 가구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가구에 대한 정의와 조사항목에는 차이가 있는데, OECD Family Database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자료의 비교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UN 통계국(1997)과 Eurostat(1999)의 가구 구성에 대한 정의를 원용한다.

UN통계국과 유럽통계(Eurostat)의 정의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자료의 비교가능성은 자료의 수집방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수조사의 인구조사가 시행되지 않는 독일과 네덜란드 자료는 등록부(register)와 샘플조사에 의한다. 비교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가구 구성원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일상적인 거주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 거주 장소에 대한 행정적인 정보는 데이터의 가장 비교가능한 자원이다. 응답자들이 센서스나 서베이에서 “일상적인” 거주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비교가능성의 이슈가 될 것이다. 최근 동거와 독거를 번갈아 하는 성인들(예, 몇날며칠은 함께 생활하지만 각자 다른 주소지에 등록된 파트너들이 증가하는 등 비전통적인 생활환경의 증가로 하나 이상의 거주지를 중복적으로 가지는 성인과 아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SF9).

부모가 결별한 아동의 경우 이중 카운팅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들은 양부모가 있는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포함된다. 또한 동거와 독거를 번갈아 하는 파트너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거주지를 따로 가지고 있을 때 1인가구와 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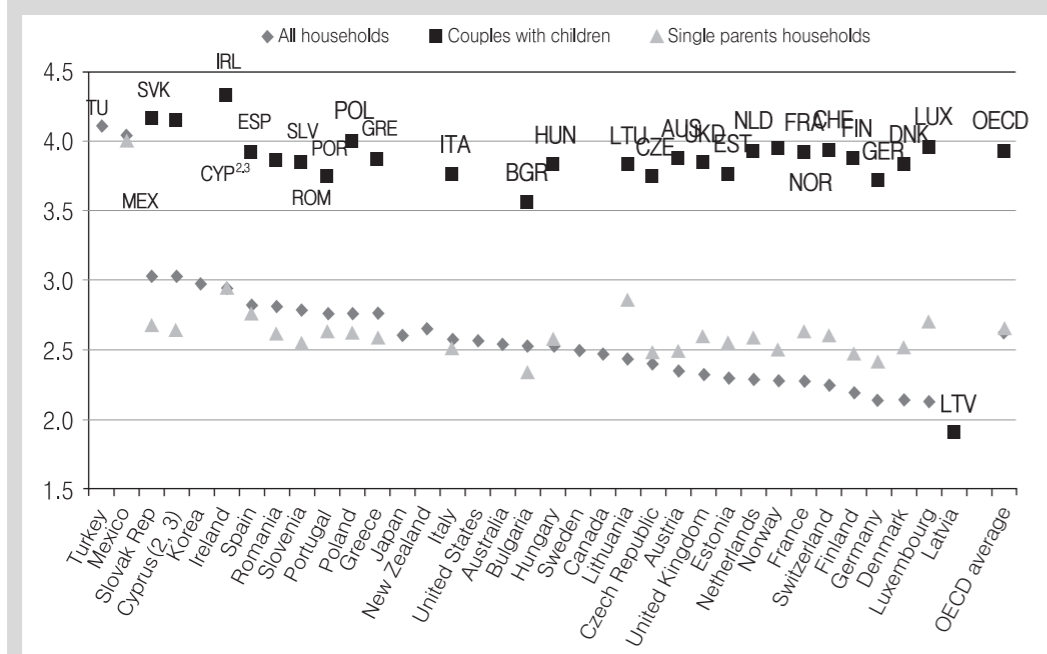
모가구, 또는 복합가족의 수는 과다 추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Toulemon(2008)은 프랑스에서 4~6% 사이의 성인이 두 개의 거주지에 살고 있으며, 6.4%의 아동이 하나 이상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가구 유형별 비율에 대한 비교가능성은 아동에 대한 모든 카테고리가 동일한 자료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해 낮아 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자료원에 따라 “부양자녀”를 정의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센서스에서는 25세 이하의 집에서 거주하는 모든 부양 자녀를 포함하지만, ‘자녀의 수에 따른 가구(SF 1.3)’의 유럽노동력 조사에서는 14~24세 연령 중 비고용인 자녀만 포함한다.

또한 센서스나 노동력조사에서 동성 커플이 어느 범위만큼 포함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국가별 실재가 다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커플가구에 대한 센서스 통계는 단지 이성 파트너만 포함하는 반면에(Digoix et al., 2004), 노르딕 유럽 국가의 인구 등록부에서는 동성 배우자도 포함된다(Andersen et al., 2004). 그런 커플을 보고하지 않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 동성배우자의 포함은 커플 가구의 수를 상대적으로 약간 증가시킨다.

4) 자료원과 추가 자료 (sources and further reading)

마지막으로 작성기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자료원에 대한 소개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자료원을 소개하고 있으나, 정의와 개념, 선정 기준과 같은 자료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

그림 1. 가구규모(SF1.1)의 결과물 예시



자료: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는 문헌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4. 통계생산 방안 모색

가족 데이터와 관련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의 목적이나 조사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표들을 생산해왔다. 이들 지표들은 국내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나, 조사기준이나 분류방법, 포괄범위 등이 국제기준을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⁵⁾. 아래의 <표 3>에서 보듯이 Family Database의 평균 가구 규모

(SF1.1)에서는 전체가구, 유자녀 커플가구, 그리고 한부모가구의 평균가구원수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표 3>에서 한국의 자료는 전체 가구에 대해서만 제공되고 나머지 통계는 빈란인데 이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의 작성 기준이 국제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가구 규모’에 대한 한국의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가구규모의 형태가 우리나라는 일반가구를 핵가족, 직계가족, 그리고 기타가족으로

구분함에 비해 국제기구는 유자녀 커플가구, 한부모가구로 구분하고(표 3참조) 있다. 이는 OECD 등 국제기구의 지표들이 핵가족을 기본 전제로 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핵가족과 직계가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Family Database의 가구유형(SF1.1)에 대한 항목에서는 커플가구, 1인 가구, 한부모가구, 그리고 기타가구에 대한 비율이 각각 제시되고, 특히 한부모 가구의 경우 가장의 성에 따라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비율과 남성 한부모 가구의 비율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표 5참조).

표 3. Family Database의 평균 가구 규모(SF1.1)

(단위: 명)

	전체 가구	유자녀 커플가구	한부모 가구
터키	4.1	:	:
멕시코	4.0	4.8	4.0
한국	3.0	:	:
아일랜드	2.9	4.3	3.0
스페인	2.8	3.9	2.8
포르투갈	2.8	3.7	2.6
그리스	2.8	3.9	2.6
일본	2.6	:	:
뉴질랜드	2.6	:	:
이탈리아	2.6	3.8	2.5
미국	2.6	:	:
호주	2.5	:	:
스웨덴	2.5	:	:
캐나다	2.5	:	:
오스트리아	2.3	3.9	2.5
영국	2.3	3.8	2.6
네덜란드	2.3	3.9	2.6
노르웨이	2.3	3.9	2.5
프랑스	2.3	3.9	2.6
스위스	2.2	3.9	2.6
핀란드	2.2	3.9	2.5
독일	2.1	3.7	2.4
덴마크	2.1	3.8	2.5
룩셈부르크	2.1	4.0	2.7
OECD 평균	2.6	3.9	2.7

자료: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가계조사;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 유아교육 및 보육 실태 조사; 이숙 외 아동백서 2006;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 등.

표 4. 한국의 ‘가구 규모(SF1)’에 대한 통계자료(2005)

(단위: 명)

평균가구원수	핵 가족			직 계 가족		기타 가족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3.4	2.0	3.8	2.5	3.2	5.0	3.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표 5. Family Database의 가구 유형(표 SF1.1)

(단위: 전체 가구 대비 %)

	커플가구	1인가구	한부모가구			기타가구
			전체	여성한부모 %	남성한부모 %	
호주	58.7	26.5	5.8	87	13	9
오스트리아	52.9	33.5	9.7	85.3	14.7	3.9
벨기에	52.3	31.6	12.1	4
캐나다	57.4	26.8	15.7	80.1	19.9	0.1
덴마크	50.9	36.8	5.1	85.1	14.9	7.2
핀란드	49.8	37.3	7.6	84.9	15.1	5.3
프랑스	58.3	31	8	85.3	14.7	2.7
독일	55.4	35.8	5.9	84.5	15.5	2.9
그리스	64.9	19.7	8.7	84	16	6.6

〈표 5〉 계속

	커플가구	1인가구	한부모가구			기타가구
			전체	여성한부모 %	남성한부모 %	
아일랜드	59.2	21.6	11.7	84.8	15.2	7.6
이탈리아	62.3	24.9	8.9	82.5	17.5	3.9
일본	50.4	27.6	8.5	13.5
한국	72.6	..	9.4	18.65
룩셈부르크	59.6	29.3	8.4	77.7	22.3	2.7
멕시코	58.6	..	8.5	87.1	12.9	
네덜란드	59.9	33.6	5.8	84.5	15.5	0.7
뉴질랜드	60.1	22.6	9.3	8.1
노르웨이	52.2	37.7	8.6	82	18	1.5
포르투갈	69.1	17.3	8.6	86.7	13.3	5
스웨덴	63.9	
터키	
영국	53.5	30.2	9.8	86.7	13.3	6.6
미국	51.7	27.36	9.2	77.5	22.5	11.8
OECD 평균	57.4	28.4	9	84.8	15.2	6.4

자료: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이와 달리 한국의 가구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세대 가구, 2세대가구 등 세대구성별 가구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표 6참조), 각 세대에서는 부부를 중심으로 형제자매, 친인척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국제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가치가 통계작성에 반영된 것이지만 앞으로 실태조사와 통계분석에는 국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통계가 국제 기준과 차이가 있으므로 OECD Family

Database의 국내 통계 생산은 크게 3가지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기존 통계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재분석하는 경우이다. 앞서 살펴본 SF1에서 가족의 평균 구성원 수는 통계청 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구성의 경우에는 가구유형별 국제기준에 맞도록 재분석하면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 2]와 같이 인구주택총조사표의 가구원에서는 자녀의 수와 연령에 관한 항목이 이미 있으므로 OECD Family Database에 제공하는 자료를 위해서는 기존의 세대별 구성에서 벗어나 가구유형별 자녀의 수⁶⁾(SF 1.2)와 가구유형별

6) SF1.2는 가구유형별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을 보여주는데 그 항목들은 전체 가구 대비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 자녀가 있는

표 6. 한국의 '가족 구성(SF1)'에 대한 통계자료

(단위: 가구)

일반가구	세대	비율	
		비율	비율
일반가구	1세대가구	계	15,887,128
		부부	2,574,717
		부부+형제자매	17,525
		부부+기타친인척	16,081
		가구주+형제자매	203,967
		가구주+기타친인척	32,902
		기타	45,260
	2세대가구	계	8,807,326
		부부+자녀	6,701,759
		부+자녀	286,923
		모+자녀	1,083,020
		부부+양친	23,279
		부부+한부모	131,544
		부부+자녀+부부형제자매	73,562
		조부모+손자녀	58,101
		기타	449,138
		3세대가구	계
	부부+자녀+양친		140,535
	부부+자녀+한부모		567,150
기타	384,877		
4세대이상		15,902	
1인가구		3,170,675	
비혈연가구		225,946	

주: 외국인 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자녀의 연령⁷⁾(SF1.3)으로 추가적인 조사없이 원 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재 분석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통계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⁸⁾.

다음 국내에 유사한 통계 혹은 조사가 있으나 작성기준의 차이로 기존 조사항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대분류 1.의 SF8과 SF9는 혼인 상태와 배우자의 지위를 살펴보는 항목들로 구

커플가구의 비율,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의 비율임.

7) SF1.3은 가구유형별 자녀의 연령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데 그 항목은 자녀의 수가 0명, 1명, 2명, 3명이상, 전체 가구 대비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비율임.

8) OECD Family Database의 Category No : SF1, 2, 3, 7와 LMF 1, 3, 8 및 CO 7.

그림 2.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표(2005) 예시

1. 가구원에 관한 사항		①번 가구원	②번 가구원	③번 가구원	④번 가구원	⑤번 가구원
항목별 작성 예 홍길동 ♂ 남자 ♀ 여자 46살 주 미 1960년 9월 15일 ♂ 양력 ♀ 음력	성명 이 가구에서 살고 있는 분의 성명 (성명과 성별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몇 살입니까? (성별에 상관없이 기입하십시오.)	연령 몇 살입니까? (성별에 상관없이 기입하십시오.)	연령 몇 살입니까? (성별에 상관없이 기입하십시오.)	연령 몇 살입니까? (성별에 상관없이 기입하십시오.)
가족원과의 관계 이 분은 가구의 어떤 관계입니까? *가정주거 기준으로 어떠한 관계인지 결정하는 한 곳에만 표시합니다. *가족주는 호주나 세대주와는 관계 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는 가구의 배우자 항목에 해당합니다.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배우자의 부모 ⑥ 손자녀, 그 배우자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⑨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⑩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⑪ 기타 친·인척 ⑫ 기타 동거인 (단, 방앗간(머취) 포함)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배우자의 부모 ⑥ 손자녀, 그 배우자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⑨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⑩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⑪ 기타 친·인척 ⑫ 기타 동거인 (단, 방앗간(머취) 포함)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배우자의 부모 ⑥ 손자녀, 그 배우자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⑨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⑩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⑪ 기타 친·인척 ⑫ 기타 동거인 (단, 방앗간(머취) 포함)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배우자의 부모 ⑥ 손자녀, 그 배우자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⑨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⑩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⑪ 기타 친·인척 ⑫ 기타 동거인 (단, 방앗간(머취) 포함)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배우자의 부모 ⑥ 손자녀, 그 배우자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⑨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⑩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⑪ 기타 친·인척 ⑫ 기타 동거인 (단, 방앗간(머취) 포함)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배우자의 부모 ⑥ 손자녀, 그 배우자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⑨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⑩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⑪ 기타 친·인척 ⑫ 기타 동거인 (단, 방앗간(머취) 포함)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성되어 있다. 이 때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는 혼인상태에 대한 답변으로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으로만 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4가지 답변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가구주와의 관계가 동거 형태인 경우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동거가 생활화된 영미국가와 유럽 국가들에서는 커플여부에 대한 질문 후에 반드시 커플의 관계를 묻는 질문으로 결혼과 동거의 구분이다. 예를 들면 SF9는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파트너십과 동거의 비중(partnership and prevalence of cohabitation)이고, 둘째, 파트너십의 상태와 자녀들(partnership status and children)이다.

우리나라처럼 보수적인 국가에서는 동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가구유형에서 '동거'를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표에 동거가 포함되어 있어도 인구조사가 주로 조사원에 의한 대면조사이므로 사실을 조사하는데 주저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또 다른 자료인 출생신고서에도 실제 결혼시작일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동거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의 통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요구되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통계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 통계조사의 보완이 요구된다.

끝으로 국내 기존 자료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신규 통계의 생산이 필요한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수로 조사가 행해지는 것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유일하며, 대상자별로 유

아교육·보육실태조사, 출산 및 결혼동향조사, 독거노인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계열적으로 조사되는 것은 노동패널, 복지패널, 고령자패널 등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조사들이 부문별로 시행되고 있어 아동의 연령별 모의 고용상태(LMF 2)처럼 복합적인 자료를 추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저출산과 관련된 출산코호트(SF 4.2), 연령별 출산율의 프로파일(SF5.3), 무자녀 가구 실태와 무자녀 코호트(SF7), 아동양육의 특성(PF 5.1), 공식적인 아동빈곤율(CO8),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노동시장에도 진입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실태(CO13), 생애 첫 투표 참여율(CO15) 등은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통계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사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규 조사 여부나 방향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5. 나감

지금까지 OECD Family Database의 개요, 분류체계와 개발단계, 개별통계의 작성기준 고찰, 그리고 통계생산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렇게 살펴 본 결과 국내 통계가 Family Database의 통계로 그대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작아 보인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기존 통계자료의 품질관리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적합한 통계의 생산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먼저 기존 통계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재분석하는 경우이며, 다음 국내에 유사한 통계 혹은 조사가 있으나 작성기준의 차이로 기존 조사항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끝으로 국내 기존 자료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신규 통계의 생산이 필요한 경우이다.

최근 가족정책에 큰 관심을 둔 우리나라에게 OECD의 Family Database의 구축은 복지선진 국가와 정책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본다. 보건복지